

Nr. 555 (2025 - 01-02)

초심



Licht und Salz

초심

편집부

찬미 예수님! 2024년을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2025년이 왔습니다. 뭇헌 본당과 모든 공소 형제 자매님들이 즐거운 성탄을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셨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며 한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리라 다짐합니다. 우리 신자분들은 어떤 다짐과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좋은 점과 고쳐나가야 할 점을 찾는것은 초심을 다시 되새기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새해를 맞이한 만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되새겨보고 그 설렘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더욱더 실천하고 모든 분들에게 뜻깊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3, 2, 3, 4, 5-6

형제 여러분,

2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3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5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6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11월 8일 청년미사 이준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1



11월 8일 청년미사 이준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2

초심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빛과소금 역사 / 김서현 로렌

공소글 / 채명희 카타리나



2025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초심 (Neues Herz)

3,4월 십자가 (Das Kreuz)

5,6월 어머니 (Mutter)

7,8월 순례 (Wahlfahrt)

9,10월 일치 (Einheit)

11,12월 탄생 (Geburt)



11월 10일 김재인 로즈마리 첫영성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만민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희년 묵상과 2025년 사목지침

허광철 요셉 신부님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Spes Non Confundit)

지난 12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 개방으로 2025년 희년(禧年)이 시작되었고,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로 끝이 납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로서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이의 해방과 구원을 노래하는 해입니다.

이 희년에 555호 '빛과 소금'의 모든 독자들과 바이에른 모든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있고, 우리나라도 분열과 혼란으로 어수선하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빠지게 하는 어둠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의 주제처럼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희망마저 없다면 우리의 사랑과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1-2.5).

2025년 뮌헨한인본당 사목지침

우리 공동체는 뮌헨 본당과 세 개의 공동체(레겐스부르크,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뷔르츠부르크)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와 연결된 바이에른 여러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삶과 신앙안에서 '희망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목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에 매진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영성생활과



12월 15일 본당 총회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 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우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공동체생활로 이루어집니다. 영성생활의 중심인 미사와 고해성사에 언제나 중심을 두며, 성경읽기와 기본적인 기도생활(화살기도, 목주기도 등)을 통해 매일을 성화합시다. 아울러 공동체 생활 역시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2. 가정 성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복음의 기쁨과 희망을 살아가는 첫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매일 또는 기회가 닿는 대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거나 가정기도를 하며 거룩한 성가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3. 신앙생활의 열매는 사랑실천과 일치입니다. 사랑실천으로 일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일치를 위해 노력합시다.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 선교에 대한 열정 역시 사랑실천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공동체안에서 일치를 위한 나의 모든 노력과 희생은 기도가 됩니다.

2025년 올 한해도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과 자비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사랑과 희망으로, 여러분의 본당신부 허광철 요셉 - ■■■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0,1-6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2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

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3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이 먼 곳에서 오

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5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쁨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6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

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12월 20일 성모회 크리스마스트리 제작

관상기도

전영민 수산나

성냥과 양초가 만난 그날, 성냥이 양초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너에게 불을 붙이라는 위임을 받았다. 양초가 놀라서, 그것만은 절대 안된다 내 몸이 타 들어 가게되면 그때부터 내가 살 날은 다 헤아려진 것이다. 아무도 나의 아릅다운 자태를 경탄하지 않을 것이다.

성냥개비가 다시 양초에게, 그럼 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딱딱하고 냉랭한 모습으로 머뭇기를 원하느냐?

양초가 잔뜩 겁에 질린 듯 그럼지만 내 몸이 타 들어가게 되면 몹시 고통스럽고 힘이 다 빠져 버릴텐데 그건 그렇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양초와 성냥이 해야 할 소명의 비결이란다. 우리는 빛을 발산 하라는 부름을 받았단다.

나 성냥개비가 할 수 있는것은 보잘것 없는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점화 하지 않으면 내 용무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불을 붙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는 양초로서 어둠을 빛추어 환한 길을 만들어주고 따뜻함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 힘을 쏟아 넣을

때 너는 네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네 온 생을 바쳐서 헌신을 다한 너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네 자신을 소모하게 되면서 세상은 너의 온기와 불빛을 계속 나눌 것이다. 다만 네가 그런 것을 거부하게 되면 네 존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자 양초는 그 심지를 크게 돋우고서 기대에 찬 소리로 '나는 원한다 제발 나를 불 붙여다오.'

-어느 잡지에서 읽고 번역한 글입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인 것이다. 우선, 성냥과 양초가 이루어낸 소명은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자신을 홀라당 태워서 빛을 발산하고 따뜻함을 선사하는 양초는 누군가가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대로 차갑고 딱딱하게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냥 역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저 한 개비 하찮은 작은 나무 조각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 안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12월 25일 성탄 미사 1

하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 해 내고 세상을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다. 사람 '인' 자가 둘이 서로 받쳐주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들 중에서는 혼자서 성경을 읽고 새겨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느님의 말씀을 떠나르며 주님의 사랑을 접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주위를 밝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가지는 삶의 유한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양초는 진짜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소멸될 것을 두려워 한다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간 역시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의 공포는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에서 그것을 만회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죽음에서 모면 할 수 있는 단 한가지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 살은 사람 만이 두려움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꽃들이 아름다운 것은 낙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난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낙조는 내일의 새 날을 기약 하기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편견일 뿐이고 자연의 일부인 우리 역시 오직 우주의 흐름에 따라 그 법칙을 따르는 것 뿐이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평소 나 자신의 지론이고 죽는다는 것에 전혀 혐오감 같은 것도 없는 것이

다.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빛속에서 살아가는 순례자이다.

Mors certa, hora incerta.

Der Tod ist gewiss, die Stunde ungewiss. ■■■



12월 25일 성탄미사 2



12월 25일 성탄미사 3



12월 25일 성탄미사 4

빛과 소금 역사

555호 특집

김서현 로렌

우 리 월보 <빛과 소금>은 뮌헨 한인 가톨릭 공동체와 역사를 함께 하였으며 뮌헨을 거쳐간 가톨릭 신자들의 역사의 증인과 같습니다. <빛과 소금>은 초기에 수기로 작성되던 발행물에서 타자기를 거쳐 오늘날 전자 편집에 이르는 기술발전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555호를 맞이하여 편집부에서 소식지 <빛과 소금>에서 다루었던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한 데 모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973년 2월 뮌헨가톨릭교우회 회칙 제정 및 회보 1호 발간 추정(주보 개념)

1977년 3월 6일 김수환 추기경님 미사

1983년 3월 설립 10주년 기념 특보 ,머릿돌' 발간 (수기로 작성)

1984년 1월 1월 회보 119호 발간(수기로 작성, 여기부터 회보 보관되어있음)

1986년 1월 143호에서 1988년 178호까지 (타자기 사용)

1986년 8월 26일 대구대교구 사제파견시작(고. 황용식 타대오 신부님 첫 미사)

1988년 12월 178호에서 1991년 1월까지 회보 자료 없음

1992년 7월 에어랑엔-뉘른베르크 공소 소식 시작

1993년 7월 Eichstätt 공소 소식 시작 (공소들: München, Regensburg, Erlan-

gen, Eichstätt)

1994년 1월 9일 새벽 공동체 Zentrum 건물 화재

1998년 10월 17일 Würzburg 공소 시작

1999년 10월 Gottesdienst der Nationen 외국인 공동체 미사 시작 (매년 다른 성당에서)

2002년 10월 18일 뮌헨공동체 30주년 „서른잔치“

2002년 10월 29일 레겐스부르크 공소 미사 재시작

2006년 9월호부터 „빛과 소금“ 정식 명칭 시작 (그 전에는 „회보“)

2007년 2월 391호 성모회 첫 회의

2012년 8월 456호 뮌헨본당 창립 40주년 월보

2017년 01월 01일 조환길 타대오 대구 대주교님 방문 ,미사

2018년 부터 빛과 소금 2달에 한번씩 발행으로 변경 시작

2020년 5월 코로나로 인해 미사 장소 임시 변경 St.Peter Kirche

2025년 1월 빛과소금 555호 발행 📖



빛과 소금 월보 모음

"나는 신자입니다"

채명희 카타리나

저는 독일에 와서 허광철 요셉 신부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여 신앙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때는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세례를 받은 후 나는 더 성실한 인간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매사에 신중하려고 노력했고, 자주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뒤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공동체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했고, 또 떠나갔습니다. 작은 공소에서 신앙 생활을 오래 이어오며 때로는 힘들었지만, 때로는 깊은 행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교포," "다문화 가정," 그리고 "신자"입니다.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저를 "교포"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또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로 저를 설명했을 때, 어쩐지 낯설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단어는 저도 모르게 저를 설명하는 이름이 되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자."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성실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신자가 맞는가? 자신 있게 대답



채명희 카타리나 자매님 세례



12월 27일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성탄송년미사

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성장해 온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신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는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성숙한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그들에게 의지하며, 스스로는 점점 나태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으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그러다 문득, 세례를 받았을 당시의 마음가짐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초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며, 지금 다시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성실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어색하지않게 자신 있게 말해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새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12월 21일 뷔르츠부르크 공동체 가정미사



12월 25일 성탄미사 후 뒷풀이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름프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weg 6A, 93051 Regensburg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편집부

김서현 로렌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박석정 가브리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